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1. ①	2. ②	3. ⑤	4. ③	5. ②
6. ⑤	7. ①	8. ④	9. ⑤	10. ④
11. ⑤	12. ④	13. ⑤	14. ③	15. ③
16. ④	17. ⑤	18. ③	19. ④	20. ②

- 제시문의 '나'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어떤 한 사람'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서, '또 한 사람'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 윤리학을 규정하고 있다. 제시문의 '나'는 다른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해 윤리학이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 대해, ⑤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서 규범 윤리학이나 메타 윤리학에 대해 제기할 주장이다. ③, ④ 도덕 이론의 도덕 문제 해결에의 적용이나 보편적 인생 목적의 제시는 규범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 갑은 칸트, 을은 아퀴나스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가 된다고, 아퀴나스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행위해야 도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시된 사례에서 A는 자살을 도덕적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 여겨 자살을 포기하였다.
 - ㄱ. 칸트가 A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평가한다면, A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 아닌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의식에서 행위했기 때문일 것이다. ㄴ. 아퀴나스가 A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평가한다면, A가 자신의 보존이라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ㄷ. 공리주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한다. ㄹ. 자연법의 원리는 보편적 원리에 해당한다.
- 그림의 강연자는 보부아르이다. 그녀는 여성이 주체성을 잃고 타자로 존재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직업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보부아르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①, ② 보부아르에 의하면 여성성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여성은 이를 바탕으로 한 성 역할과 그에 따른 분업 체계를 거부해야 한다. ④ 보부아르에 의하면 현대 여성은 기꺼이 남성적 가치들을 접수하고, 그 위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행위하고자 한다.
- 죽음에 대한 (ㄱ)는 도가 사상이자, (ㄴ)는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 ㄴ. 장자에 의하면 삶과 죽음은 기의 순환에 따른 것이며,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은 차별 없이 평등하다. ㄷ. 불교에서 죽음은 고통의 일부이고, 고통은 무명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ㄹ.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야만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갑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정보의 이용은 생산자의 허락만 얻는다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을은 정보의 개인 소유를 부정하고, 정보를 공유 자산으로 본다.
 - ② 갑은 정보에 대한 개인의 독립적 소유를 인정하는 반면, 을은 정보를 공유 자산으로 보면서 정보가 모두를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갑은 과학자의 내적 책임만을 인정하며, 을은 과학자의 내적 책임과 더불어 외적 책임 즉, 연구 결과의 활용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모두 인정한다.
 - ① 과학자는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 조작, 왜곡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② 과학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에 해당한다. 이는 내적 책임과 관련된다.

- ①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낙태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이다. 이에 대한 반론 중 하나는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다."이다. 따라서 ①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태아가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라 여성과 독립된 인격체라는 주장이 될 것이다.
 - ②, ⑤ 낙태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으며, 반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①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④ 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주장이다.
- 갑은 하버마스, 을은 요나스이다. 하버마스는 이해 당사자들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규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한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된 인간이 새로운 힘에 대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의 대상은 미래 세대와 자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요나스에 의하면 미래 세대는 현세대와 호혜적 관계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도덕적 권리는 갖는다. ① 하버마스는 도덕 판단의 정당성은 공론장에서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하버마스는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요나스는 현세대는 사후적 책임을 넘어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사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하버마스, 요나스 모두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다.
- 갑은 칸트, 을은 레건, 병은 테일러이다.
 - ㄱ. 칸트는 인간의 직접적 의무 대상은 인간이라고 본다. 칸트는 동물에 대한 학대나 자연 파괴가 인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자연, 동물과 관련된 인간의 의무는 간접적 의무에 해당한다. 레건이나 테일러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ㄴ. 레건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도덕적 무능력자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도덕적 수동자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행위 능력을 지녀야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ㄷ. 칸트, 레건, 테일러 모두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ㄹ. 레건은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도덕적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 ㄱ. 싱어는 고통의 감소와 이익의 동등한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 해외 원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고통받는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정치 체제를 질서 정연한 수준으로 만드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싱어, 롤스 모두 의무의 차원에서 해외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지구적 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 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이나 정책을 변혁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① 롤스는 모든 부정한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롤스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갑은 적극적인 자발적 안락사 시행의 허용을 주장하는

데 비해, 을은 소극적인 자발적 안락사 시행의 허용만을 주장하고 있다.

- ①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에 해당한다. ②, ③ 갑, 을 사이의 토론 쟁점이 아니다.
- 제시문은 하이데거의 주장이다. 하이데거는 주거 공간의 목적을 보살핌과 돌봄, 인간의 본래적 존재 방식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하이데거는 인간이 거주함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고향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본다.
 - 갑은 베카리아, 을은 벤담이다.
 - ㄴ. 벤담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범죄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ㄷ. 벤담과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ㄱ. 응보주의의 입장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응보보다는 범죄 예방에 두었다. ㄴ. 벤담뿐만 아니라 베카리아도 유용성의 차원에서 형벌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 ㄷ. 노직은 현재의 소유 상태가 과거의 불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의의 상태는 교정되어야 한다는 교정에 관한 정의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ㄹ. 롤스는 소득의 분배가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ㄱ. 노직뿐만 아니라 롤스도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노직은 각자의 노동이나 필요, 가치 등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정형적 분배 이론이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며 침해한다고 보고 이에 반대하였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니부어이다.
 - ④ 니부어는 집단 속에서 이기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인간의 성향과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부정의가 지속된다고 보았다. ① 니부어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떨어진다고 보았다. ②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삶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③ 니부어는 힘을 바탕으로 한 정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과 사회적 도덕의 독특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갑은 마르크스, 을은 칼뱅이다.
 - ⑤ 마르크스는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칼뱅은 직업을 통해 신의 소명의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 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이 자본가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는 분업을 노동 소외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③ 칼뱅은 세속의 노동을 부정하지 않았다. ④ 칼뱅은 직업을 통한 부의 획득이 신의 소명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 갑은 다문화주의, 을은 동화주의의 입장이다.
 - ③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사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① 문화 다원주의의 입장이다. ②, ④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 갑은 정의 전쟁론, 을은 평화주의, 병은 현실주의의 입장을 가진다.
 - ④ 정의 전쟁론에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며, 평화주의에서는 모든 형태의 전쟁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① 평화주의, ② 정의 전쟁론의 입장이다. ③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에는 도덕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⑤ 현실주의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 갑은 도덕주의자인 플라톤, 을은 심미주의자인 와일드이다.
 - ② 플라톤은 예술이 인간의 올바른 도덕적 품성 함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예술에서 미적 가치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